

# 일본 선사시대의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고고학 전공  
huare@nuch.ac.kr

- I. 들어가며
- II. 일본 고고학의 무덤과 몸에 대한 연구의 흐름
- III. 조몬·야요이시대 무덤의 종류
- IV. 일본 선사시대의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
- V. 맺음말

## I. 들어가며

---

일본 고고학에서 조몬시대(縄文時代)의 무덤과 야요이시대(彌生時代) 무덤의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몬시대의 무덤은 구덩이를 파고 유해를 안치하는 토광묘와 토광 1기에 한 사람의 유체를 안치하는 굴장의 단독장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그 외에 토기관묘, 폐옥묘와 토광묘에 돌이나 흙을 쌓은 부대시설 등이 부가되는 배석묘, 환상열석, 환상주제묘 등 다양한 무덤 형식이 존재한다. 이어지는 야요이시대의 무덤은 조몬시대의 전통을 잇는 재장묘와 대륙의 영향을 받은 지석묘와 목관, 야요이문화의 독자적인 무덤 형식인 옹관묘와 분구묘 등이 있으며 재장묘를 제외하고 매장 자세는 신전장이 일반적이다.

조몬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야요이시대까지 조몬문화의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는 동일본지역과 한반도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이 강한 서일본에는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크게 본다면 매장 자세는 굴장에서 신전장으로의 변화, 출자가 다른 집단의 공동체 결속을 다지기 위한 무덤에서 사회적 계층을 보여주는 무덤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조몬시대 사생관과 무덤에 대한 인식이 대륙의 문화적 영향으로 여러 변용을 겪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무덤과 매장의례 등을 정리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몬시대에서 야요이시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변화 양상을 보이는 매장 자세, 재장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2-C13).

## II. 일본 고고학의 무덤과 몸에 대한 연구의 흐름

일본 선사고고학에서 무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일본 고고학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오카야마현(岡山県) 쓰쿠모패총(津雲貝塚), 구마모토현(熊本県) 아다카쿠로하시패총(阿高黒橋貝塚), 후지이데라시(藤井寺市) 고우유적(國府遺蹟) 조몬시대의 패총과 취락유적에서 많은 수의 인골이 확인되면서, 이미 당시부터 굴장(屈葬), 신전장(伸展葬) 등의 매장 자세, 합장, 2차장 등 다양한 매장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sup>1</sup> 이후 인골 연구는 조몬시대 매장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되었는데, 이렇듯 일본 고고학의 초기 단계부터 조몬시대 연구가 무덤과 출토 인골에 집중되었다면 야요이시대의 무덤 연구는 그와는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었다.

야요이시대의 무덤 역시 20세기 초반부터 확인되었으나 조몬시대의 무덤과 달리 출토되는 인골은 매우 적었기에 인골보다는 복구 규슈(九州)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옹관묘와 서일본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석관묘, 그리고 청동기 부장품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당시부터 조몬시대는 일반적으로 굴장에 토광묘, 야요이시대는 옹관묘, 석관묘에 신전장이라는 조몬과 야요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sup>2</sup> 특히 대륙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이해되는 야요이시대 무덤의 청동기 부장품이 무덤 자체보다는 야요이시대의 시기 구분론, 실연대론 등과 연관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 이후 일본에서 급속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새로운 유적의

---

1 三宅宗悦, 「日本石器時代の埋葬」, 『人類學・先史學講座 2』(1938); 小金井良精, 「日本石器時代人の埋葬狀態」, 『人類學雜誌』 38-1(1923); 長谷部言人, 「石器時代の蹲葬に就て」, 『人類學雜誌』 35(1)(1920).

2 三宅宗, 앞의 논문(1938).

발견으로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무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두 시대의 무덤 연구는 방향성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조몬시대의 무덤의 다양한 사례가 조사되면서 인골에 대한 관심에 더해 배석묘(配石墓)와 같은 다양한 무덤 형식, 출토 인골의 외상 흔적, 장신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부장품 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다. 1960년대 들어와 조몬 토기의 편년 연구가 진전되면서 토기 편년을 기반으로 한 무덤 출토 인골의 시간적 변천, 지역적 차이 등이 점차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조몬시대의 일반적인 매장 자세인 굴장의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확산, 신전장으로의 변화 양상 등이 대표적인 연구 주제였다. 1970년대 들어와 묘제와 인골 연구를 통해 조몬문화 집단의 사회구조를 논하기 이전까지 조몬시대 무덤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sup>3</sup> 1970년대 이후에는 조몬시대 무덤 출토 인골을 통해 사회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발치(拔齒)와 매장 자세에 관한 연구이다. 조몬시대 인골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되는 발치 흔적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197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발치가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발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건강한 치아를 뽑는 것으로, 조몬시대 중기 말에 등장해 조몬시대 만기의 도카이지방(東海地方), 주고쿠지방(中國地方)에는 다양한 형태의 발치가 확인될 뿐 아니라 발치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sup>4</sup> 하루나리 히데지(春成秀爾)<sup>5</sup>는 발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발치가 한 번이 아니라 성인식, 혼인, 상(喪) 등을 이유로

---

3 小杉康, 「一葬墓祭制と大規模記念物」, 『講座 日本の考古學 4: 縄文時代』(東京: 青木書店, 2014).

4 設樂博己, 「縄文人の通過儀禮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 『新視点 日本の歴史 原始編』(新人物往來社, 1993a).

5 春成秀爾, 「抜齒の意義-1-縄文時代の集団関係とその解體過程をめぐって」, 『考古學研究』 20(2)(1973).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치의 다양한 형식은 각 개인의 출자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규제로 이해했다. 매장 자세 중 유체의 머리 방향에 초점을 맞춘 하야시 겐사쿠(林謙作)<sup>6</sup>는 유체의 머리 방향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 방향은 매장 자세, 발치, 유체의 배치 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몬시대 매장 의례 방식이 당시의 취락 또는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무덤을 통한 사회구조의 연구와 더불어 토광묘, 유아관묘 등 개별 묘제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듯 조몬시대 무덤 연구가 인골 자체 및 매장 자세 등의 연구에서 시작해 무덤을 통한 사회구조의 파악으로 연구의 관심이 옮겨갔다면 야요이시대 무덤 연구는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1960년대 이후 각 지역에서 많은 수의 야요이시대 무덤이 조사되면서, 고분시대 전방후원분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력의 상징인 대형 고분의 출현 과정으로서, 야요이시대 무덤에서 고분으로의 변화 과정을 밝히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야요이시대 무덤이 ‘집단묘에 불균등이 없었던 단계’에서 ‘집단묘와 집단묘간에 불균등이 나오는 단계’ 그리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의 묘지, 묘역이 구분되는 단계’로 발전한다는 시각<sup>7</sup>은 이후 야요이시대 무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었다. 야요이시대 무덤에서 이와 같은 불균등 또는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덤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에서 양과 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북부 규슈 지역의 웅관묘에서는 청동거울과 다양한 청동무기류 등의 부장품이 빈번히 확인되지만, 고분시대의 중심지인 기나이지역(畿内地域)의 야요이시대 묘제인 방형주구묘에서는 부장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6 林謙作, 「縄文期の葬制-2-遺體の配列 -とくに頭位方向」, 『考古學雜誌』 63(3)(1977), 6쪽.

7 近藤義郎, 「前方後円墳の成立と変遷」, 『考古學研究』 15(1)(1968).

지역에 따른 부장품의 유무에 대해 북부 규슈의 옹관묘에 청동기류가 부장되는 것은 대륙으로부터의 선진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지만, 기나이지역에서는 공동체의 규제가 강했기 때문에 개인묘에 부장품이 없다고 해석했다.<sup>8</sup>

이렇듯 조몬시대의 무덤 연구는 무덤 형식과 출토 인골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고 야요이시대 무덤 연구는 무덤의 규모 및 부장품을 통한 계층사회의 성격 구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인골에 대한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sup>9</sup>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무덤 연구는 모두 무덤 자체와 출토 인골, 부장품 등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연구 목적은 동일하지만 조몬시대의 무덤 연구가 야요이시대나 고분시대의 무덤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발전, 계층화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다는 점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몬시대를 바라보는 일관된 시각인 ‘평등적·주술적 조몬문화’라는 관점이 조몬시대 연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sup>10</sup>, 인골 및 무덤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매장 방식을 개인이 속한 사회나 그 내부의 다양한 규제로 표현된, 문화적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즉 야요이시대 무덤의 다양한 속성을 피장자의 계층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조몬시대의 것은 지역 또는 시간적 차이, 출자 집단의 차이 등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8 都出比呂志, 「農業共同體と首長権」, 『講座日本史 1』(東京: 岩波書店, 1970).

9 奈良貴史, 「総論 出土人骨の最新研究」, 『考古學ジャーナル』 645(2013); 雄山閣, 『特集 ヒトの骨考古學 季刊 考古學 143號』(東京: 雄山閣, 2018) 등.

10 小杉康, 앞의 논문(2014).

11 小林克, 「b. 縄文墓地」, 『日本の考古學 上』(広島: 學生社, 2005).

이와 같은 연구에 기본 전제가 되는 무덤의 속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성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생전부가속성(生前附加屬性)과 사후부가속성(死後附加屬性)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매장 후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시성을 기준으로 하면 가시속성(可視屬性)과 불가시속성(不可視屬性)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2</sup>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생전부가속성: 피장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부가되는 속성으로, 일반적으로 피장자와 다른 사람들 모두 양측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각적인 것이 많으며,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 생전부가속성 1류: 신체에 직접 행하는 것으로, 발치, 두개 변형, 문신, 상처흔 등 신체 변형이 일반적이다.
  - ▶ 생전부가속성 2류: 탈착 가능하거나 가역적인 것으로 장신구, 화장, 바디페인팅 등을 들 수 있다.
- ② 사후부가속성: 피장자가 사망한 후 매장 및 장송 의례의 과정에서 부가되는 속성으로, 다시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 사후부가속성 1류: 무덤 자체에 부가되는 속성으로, 무덤의 형태, 규모, 장축방향, 상부구조 등이 해당된다.
  - ▶ 사후부가속성 2류: 유체 자체에 부가되는 속성으로, 매장 자세, 얼굴 방향, 유체 방향, 유체 파손 등이 해당된다.
  - ▶ 사후부가속성 3류: 장송 의례 중에 부가되는 속성으로, 부장품, 장신구, 적색안료 산포, 토기피복, 포석(抱石) 등이 해당된다.

- ① 가시속성: 매장 후에도 남아 있는 일반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12 山田康弘, 「總論 縄文時代の葬制」, 『縄文時代の考古學 9: 死と弔い 葬制』(東京: 同成社, 2007).

매장 위치, 상부 구조, 규모 등 유체에 직접 부가되는 속성이 아닌 경우가 많다.

- ② 불가시속성: 매장 후 남아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속성으로, 매장 자세, 장신구 착용, 토광 내 부장품, 적색 안료 등의 산포, 관, 유체 파손 등 유체에 직접 부가되는 속성이 많다.

이러한 각 속성은 피장자의 성별, 연령, 사인, 혈연관계, 지위나 신분, 능력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되었을 것이지만, 속성의 성격에 따라 그 배경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가시속성은 매장 의례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장자 외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에 피장자에 대한 기억이 유지되고 그것을 매개로 남아 있는 사람과 피장자의 관계성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지위, 신분 등 피장자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요소 또는 묘제 자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시스템의 유지 기능을 배경으로 부가되는 속성은 보다 가시적인 면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매장이 완료된 후에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불가시속성이 어떠한 이유에서 부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몬시대 일부의 매장 사례 중, 임신부의 유체 얼굴에 적색 안료를 도는 행위나 유체의 뼈를 새롭게 배치하는 장례의 요인을 피장자의 사인(死因) 또는 출자 집단의 차이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sup>13</sup>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다음으로는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 무덤의 종류와 장제의 시간적, 지역적 전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13 위의 논문.

### Ⅲ. 조몬·야요이시대 무덤의 종류

#### 1. 조몬시대 무덤의 종류

수천 년간에 이르는 조몬시대는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무덤 형태와 장법이 사용되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유해를 안치하는 토광묘와 토광 1기에 한 사람의 유체를 안치하는 단독장이다.<sup>14</sup> 그 외에 무덤의 형태로는 토기를 무덤으로 사용하는 토기관묘(土器棺墓), 폐기된 주거지를 무덤으로 사용하는 폐옥묘(廢屋墓)와 토광묘에 돌이나 흙을 쌓은 부대시설 등이 추가되는 배석묘(配石墓), 환상열석(環狀列石), 환상주제묘(環狀周堤墓)와 같은 다양한 종류가 확인된다.

또한 매장이 몇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1차장, 재장(再葬, 2차장)으로 구분된다. 우선 한 번의 매장으로 완결되는 1차장의 경우, 매장 자세에 따라 굴장과 신전장으로 구분된다. 묘광을 깊이 파고 앉아있는 자세로 매장하는 좌장(座葬)도 일부 확인되지만, 조몬시대의 매장 자세는 굴장이 기본적인 형태이다. 신전장은 동일본의 경우 조몬시대 중기부터 등장해서 후기에 일반화되는 것에 비해, 서일본에서는 조몬시대 만기에서 야요이시대 이른 시기에 걸쳐 굴장에서 신전장으로의 변화가 보인다.

재장은 우선 유체를 백골화한 후 1차장과는 다른 지점에 백골화된 뼈들만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1차장을 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1차장이 토광묘의 형태였을 경우 백골화된 유체를 다시 파내면서 토광 자체는 훼손되기 때문에 1차장의 토광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재장에서 불탄 흔적이 있는 뼈가 확인된다면 화장에

---

14 小林克, 앞의 논문(2005).

의한 1차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재장은 토기관에 뼈를 매납하는 토기관묘, 여러 유체의 인골을 한 곳에 모아서 무덤을 조성하는 집골묘(集骨墓), 집골묘의 일종으로 뼈를 방형의 형태로 만드는 반상집골묘(盤狀集骨墓)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집골묘는 동일본에서는 조몬시대 중기 이후부터 등장하지만, 규슈나 시코쿠(四國)에서는 조몬시대 이른 단계부터 동굴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무덤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으로는 석촉, 석부 등의 실용적인 석기류, 부장용의 토기류, 토우(土偶) 등의 주술적인 의기류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류 등이 있다. 부장품이 공반되는 무덤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몬시대 중기부터 무덤에 부장품이 확인되고 후기로 가면 주술적인 기물을 비롯해 양과 질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sup>15</sup>

## 2. 야요이시대 무덤의 종류

야요이시대는 한반도로부터 도작 농경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요소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시작된 시대로, 야요이시대의 문화 요소는 야마노우치 스가오(山内清男)<sup>16</sup>가 지적했듯이 조몬시대부터 이어진 문화 요소, 대륙에서 기원한 문화 요소, 야요이시대에 독자적으로 발달한 문화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야요이시대의 묘제 역시 조몬시대 전통의 묘제가 야요이시대까지 이어지는 것, 한반도의 영향으로 새롭게 사용되는 묘제, 야요이시대에 독자적으로 형성된 묘제로 구분된다.<sup>17</sup>

---

15 中村大, 「縄文文化」, 『副葬を通してみた社会の変化 季刊 考古學 第70號』(東京: 雄山閣, 2000).

16 山内清男, 「日本远古の文化 六」, 『ドルメン』 9(1932).

17 石川日出志, 「a. 葬制」, 『日本の考古學 上』(広島: 學生社, 2005).

조몬시대 전통적인 묘제가 야요이시대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재장묘이다. 1963년 지바현(千葉県) 텐진마에유적(天神前遺蹟)에서 토광에 매납된 호 중에서 성인남녀의 뼈와 두개골이 출토되었는데(그림5), 호는 완형에 경부 직경이 10cm 정도이기에 육탈된 후 뼈의 일부를 매납한 재장묘로 확인되었다. 이후 여러 유적에서 인골이 들어있는 호가 확인되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야요이시대 전기에서 중기 전반까지, 지역적으로는 츄부지방(中部地方), 간토지방(関東地方), 도호쿠지방(東方地方) 남부 등 동일본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확인되었다. 2차장의 뼈를 토기에 넣어 매장하는 재장토기관묘는 동일본 야요이시대의 특징적인 묘제로 생각되었는데, 조몬시대 후·만기의 재장토기관묘가 확인되면서 조몬시대 묘제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토기관묘로 사용하는 토기의 기종이 조몬시대에는 대부분 자비용기였다면 야요이시대에는 저장용기인 호, 웅 등의 기형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일본 야요이시대의 특징적인 묘제인 재장묘는 중기 중엽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방형주구묘, 목관묘, 토광묘 등 유체를 직접 관에 넣어서 흙 속에 매장하는 야요이시대의 일반적인 묘제로 바뀐다. 그러나 간토지방, 츄부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재장묘가 야요이시대 후기, 고분시대 중기까지 존속하기도 한다

조몬시대의 전통이 야요이시대로 이어진 것이 동일본에서 재장묘라면, 서일본에서 확인되는 조몬시대 전통은 매장 자세이다. 북부 규슈지역은 한반도에서 지석묘나 석관묘 등의 새로운 묘제가 전파되지만, 매장 자세는 조몬시대 전통의 굴장과 한반도로부터 새롭게 전파된 신전장이 모두 확인된다. 규슈 북서부지역에서는 굴장이 많고 규슈 북동부지역에는 신전장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것은 대륙계 묘제에 조몬시대 전통의 매장 자세가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사자를 안치하는 관이나 상부시설은 한반도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사자의 매장 자세, 사자에 대한 관념은 조몬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sup>18</sup>

한반도로부터의 영향으로 등장한 묘제로는 지석묘와 목관이 대표적이다. 지석묘는 북부 규슈의 서쪽 지역에만 편중되어 확인되는데, 일본에 전파된 지석묘는 대부분 남방식에 지석이 생략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매장 주체부는 한반도와 동일하게 석관묘이지만 유체의 매장 자세는 조몬시대의 전통인 굴장이 많아, 한반도에서 파급된 매장 시설과 조몬 전통의 매장 자세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된다. 야요이시대에 가장 널리 보급된 형태인 목관은 야요이시대 전기에는 긴키지방(近畿地方)까지, 중기 중엽에는 간토지방, 호쿠리쿠지방, 중기 후반에는 도호쿠지방까지 확산된다.

야요이문화의 독자적인 묘제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옹관묘와 분구묘이다. 옹관묘는 북부 규슈의 지역적 특징으로 확인되는데, 야요이시대 전기에는 성인은 목관, 소아는 호형 토기관에 매장되다가, 전기 후반이 되면 성인도 호형토기관에 매장되고 이후 구연부가 넓어져 옹형 토기로 변하게 된다. 전기 말 이후에는 북부 규슈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후기 전반에는 가장 일반적인 묘제의 형태가 된다. 옹관의 부장품으로는 한반도의 영향인 청동무기류와 청동거울이 있는데, 이러한 청동기류의 부장을 야요이사회의 계층성을 반영하는 증거로 본다. 후쿠오카현 요시타케타카키유적(吉武高木遺蹟)은 전기 말~중기 초두의 유적으로, 일반 구성원의 무덤인 옹관묘가 1,000기 정도, 길이 500m 정도의 열을 이루고 있으며, 그와는 별개로 옹관묘와 목관묘로 구성된 유력자층만의 묘역이 조성되었다. 그중 7기의 무덤에는 청동무기가 1점씩 부장되어 있고, 1기에는 한반도계 청동무기 4점과 청동거울 1점을 보유했기에 적어도 몇 단계 이상의 사회적 계층이 있었던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 야요이시대 후기 후반이 되면 옹관묘는 급속히 쇠퇴하여 석관묘나 토광묘, 목관묘로 대체된다.

---

18 위의 논문, 34쪽.

분구묘는 지역적으로는 서일본의 대부분 지역, 시기적으로는 전기에서 후기까지 넓은 시간 폭에 걸쳐 사용되는 묘제로, 북부 규슈지역의 옹관묘와 달리 부장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장품의 질과 양이 아닌 분구묘의 규모로 피장자의 계층을 추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야요이시대의 묘제 중에서 조몬시대의 전통이 이어지는 요소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묘역과 거주역의 배치는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양상이 전혀 다르다. 취락의 내부에 무덤을 조영하는 조몬시대의 취락 구조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역과 사자가 매장되는 묘역을 구분하는 야요이시대 취락 구조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조몬과 야요이 두 시대의 사생관 또는 선조에 대한 관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요이시대 묘제 연구는 무덤의 부장품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회의 복잡화와 계층화의 진전이라는 시점에서 주로 서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전방후원분으로 대표되는 고분시대의 전사(前史)로서 야요이시대를 파악하려는 연구 경향이 서일본에서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해 동일본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몬시대의 영향과 서일본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야요이시대의 묘제가 형성되었기에 그 계통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야요이시대 계층화, 사회복합화 역시 동일본에서 중기 이후에 등장한 분구묘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 IV. 일본 선사시대의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

이상에서는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묘제와 그 지역적, 시간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무덤과 장송 의례의 다양한 속성 중, 조몬시대에서

야요이시대까지 이어지며 변화를 보이는 매장 자세와 재장을 선택하여,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검토하며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 1. 매장 자세

### 1) 굴장과 신전장

매장 자세는 사자의 의도가 아닌,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행한 것이기에 만일 매장 자세에 일정의 규칙성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이든 무덤을 조영한 집단의 ‘죽음’에 대한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장 자세는 팔, 다리 및 몸통의 자세를 바탕으로 굴장(屈葬), 굴지장(屈肢葬), 신전장(伸展葬) 등으로 구분하며, 신체 전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양와(仰臥), 측와(側臥), 부와(俯臥) 등으로 나눈다.

일본에서 정연한 형태의 무덤이 확인되기 시작한 조몬시대의 매장 자세는 굴장이 일반적이며, 야요이시대를 거쳐 점차 신전장으로 변화한다고 이해된다. 유체를 구부려 매장하는 굴장의 이유에 대해서는 조몬적인 사생관, 즉 사자의 영혼이 유체를 벗어나 떠돌아다니지 않기 위해 웅크린 자세로 매장했다는 해석 또는 매장 행위를 어머니의 태내로 회귀하는 것으로 생각해 태아의 자세로 매장했다는 관념적인 해석 외에도 유체를 매장하기 위한 토광 굴토의 노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현실적인 견해도 있다.<sup>19)</sup> 물론 이에 대해 조몬시대 이른 시기부터 신전장이 시작된 지역도 있어 조몬시대 사생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토광의 크기는 매장 자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묘광 축조 노력의 절약이라는 설 역시 받아들

---

19) 小林克, 앞의 논문(2005), 236쪽.

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sup>20</sup>

굴장은 다시 여러 가지 자세로 세분된다. 일본 조몬시대 무덤에서 확인되는 총 1,365사례를 집성하여 매장 자세를 파악한 연구<sup>21</sup>에서는 매장 자세를 팔꿈치의 각도, 허리 각도, 무릎 각도로 구분하여 지역별 양상을 확인했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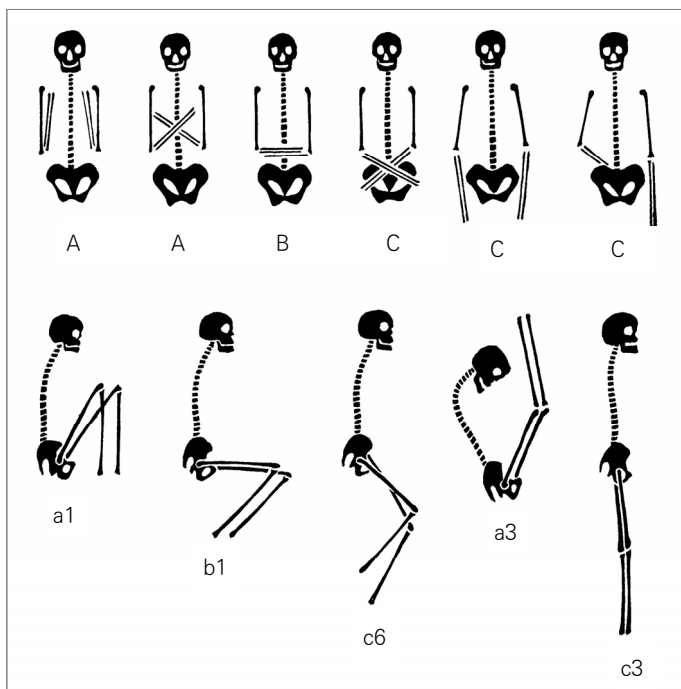


그림1-조몬시대 매장 자세의 분류  
(山田康弘, 2001a, 13쪽, 圖1의 자료 전재)

20 山田康弘, 「縄文人の埋葬姿勢 下」, 『古代文化』 53(12)(2001b).

21 山田康弘, 「縄文人の埋葬姿勢 上」, 『古代文化』 53(11)(2001a).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 동부 지역은 기본적으로 각 관절을 강하게 구부린 자세가 주류를 점한다. 홋카이도 서부와 도호쿠지방 북부는 조몬시대 초기 이후 팔꿈치와 허리는 펴지는 방향으로 변하지만, 무릎을 강하게 구부리는 경향은 전 시기를 통해 일관된다. 도호쿠지방 남부의 경우 도호쿠지방 북부와 유사하지만, 만기에는 무릎 관절을 펴는 사례도 확인된다. 간토지역과 호쿠리쿠지역은 초기 이후 각 관절의 각도가 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도카이지방은 기본적으로는 각 관절을 심하게 구부린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팔, 다리를 펴거나 가볍게 구부린 사례도 적지 않다. 긴키, 시코쿠, 주고쿠지방의 초기에서 전기까지는 각 관절을 심하게 구부린 사례가 많고, 중기가 되면 허리나 무릎 관절을 펴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로 증가한다. 후기가 되면 다시 각 관절을 강하게 구부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러한 경향은 만기까지 이어진다. 규슈지역은 초기에서 전기에 걸쳐 각 관절을 강하게 구부리는 사례가 많은데, 후기가 되면 각 관절을 강하게 구부리는 것과 펴서 매장하는 두 종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것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홋카이도에서 간토지방으로, 즉 동일본 내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매장 자세는 신전화되고, 도카이지방에서 서일본지역으로 가면서 다시 굴곡의 강도가 심해진다. 그리고 규슈지역에는 강하게 구부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분화되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이를 강굴지역(強屈地域), 슬굴지역(膝屈地域), 신전화지역(伸展化地域), 이분화지역(二分化地域)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그림2).<sup>22</sup>

---

22 山田康弘, 위의 논문; 山田康弘, 앞의 논문(200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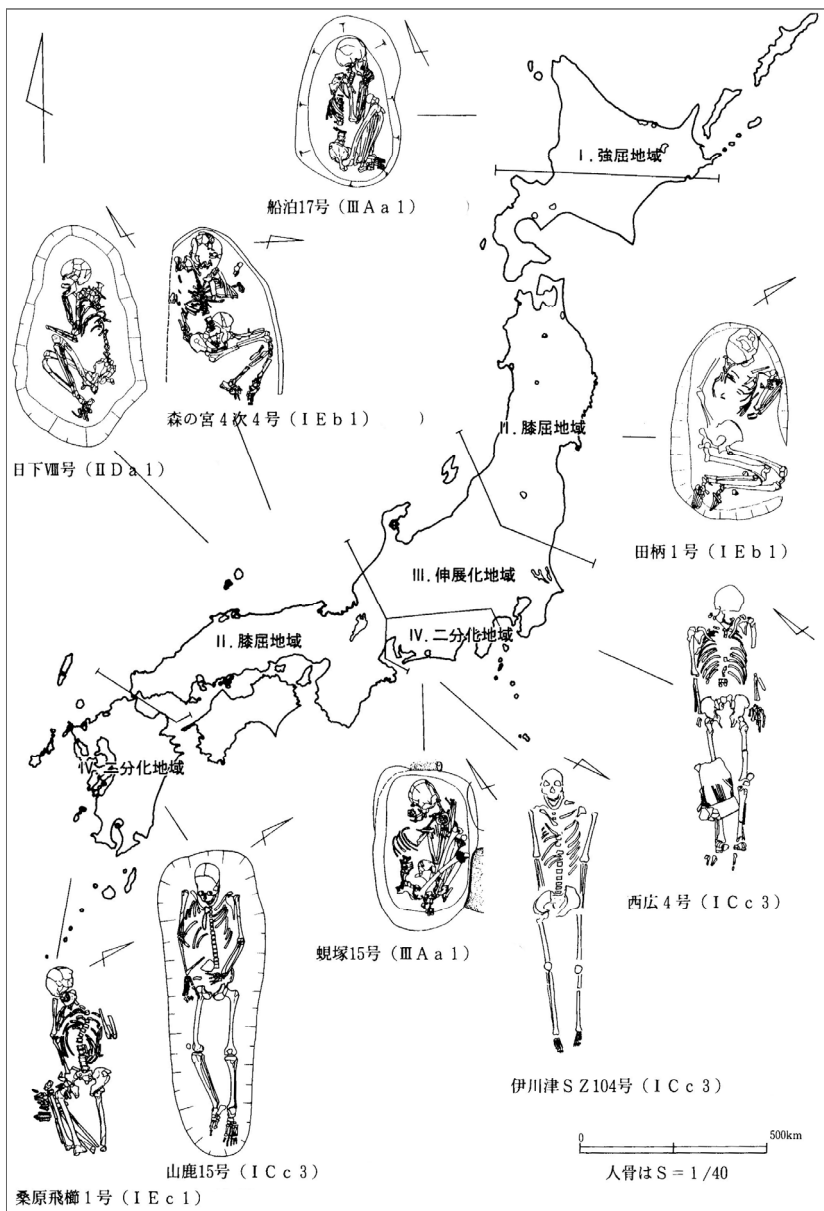


그림2-조몬시대 지역별 매장 자세

(山田康弘, 2001a, 14쪽, 圖2의 자료를 필자가 편집)

진키지방을 대상으로 조몬시대에서 고분시대까지의 넓은 시간 폭에서 매장 자세를 검토한 연구에서도 결론은 유사하다.<sup>23</sup> 이 연구에서는 무릎의 구부린 정도(A~E), 팔꿈치의 구부린 정도(1~4), 허리의 구부린 정도(-, +)를 구분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3).

部位 \ 分類	A	B	C	D	E
膝屈曲角度	45° 未満	45° 以上 90° 未満	90° 以上 135° 未満	135° 以上 160° 未満	160° 以上

膝屈曲度の分類

部位 \ 分類	1.	2	3	4
肘屈曲角度	45° 未満	45° 以上 90° 未満	90° 以上 135° 未満	135° 以上

肘屈曲度の分類

部位 \ 分類	-	+
腰屈曲角度	90° 未満	90° 以上

腰屈曲度の分類

그림3-매장 자세의 분류  
(福永伸哉, 1990, 6쪽, 圖1의 자료 전재)

진키지방에서는 조몬시대 초기부터 팔꿈치와 무릎을 강하게 구부린 굴장자세가 확인되고 이러한 양상은 후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조몬시대 만기가 되면 매장 자세에 일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점은 허리는 점차 펴지는 경향이 보이지만 팔과 다리의 구부린 자세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요이시대 전기가 되면 발견 사례 모두에 허리가 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조몬시대 만기부터 시작된 매장 자세의 변화 경향이 야요이시대에 들어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야요이시대 중기가 되면 무릎 각도에서 변화가 보이는데, 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강하게 무릎을 구부린 자세가 일반적이었으나 야요이시대 중기 이후에는 무릎을 가볍게 구부린 것과 신전화된 것이 혼재한다. 그리고 야요이시대 후기가

23 福永伸哉, 「原始古代埋葬姿勢の研究」, 『日本古代墓制の考古學的研究: とくに埋葬姿勢と埋葬儀禮の関わり』(大阪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90).

되면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전장으로 변하게 된다. 유적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본다면 조몬시대의 굴장에서 점차 유체를 반듯하게 안치하는 신전장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4).<sup>24</sup>

이러한 매장 자세의 변화는 3기의 획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조몬시대 만기에서 야요이시대 전기에 허리의 굴곡도가 90도 미만에서 90도 이상으로 변하는 단계로, 굴장에서 굴지장으로의 변화하는 시기이다. 제2기는 야요이시대 중기로 무릎의 굴곡도가 점차 변하면서 결국은 무릎을 반듯하게 펴서 안치하는 과정이며, 제3기는 야요이시대 후기에서 고분시대까지로, 팔꿈치 각도가 급격하게 펴지는 단계이다. 즉 굴장의 자세가 굴지장을 거쳐 완전한 신전장이 되는 과정으로, 결국 이는 굴장으로 대표되는 조몬시대의 매장에 대한 관념이 야요이시대를 거쳐 점차 열어지다가 고분시대에 들어와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sup>25</sup>

---

24 위의 논문, 9쪽.

25 위의 논문,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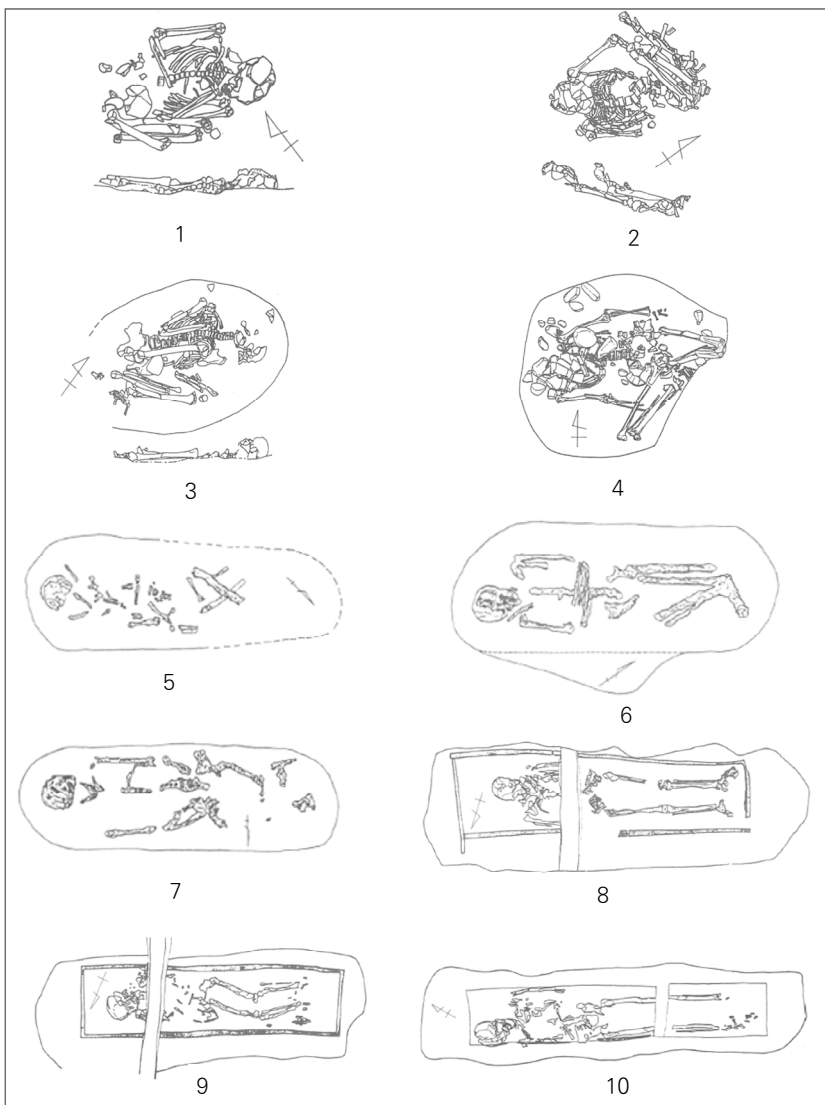


그림4-여러 종류의 매장 자세

(출장: 1. 모리노미야(森の宮) 第3次1號人骨, 2. 모리노미야(森の宮) 第3次3號人骨, 3. 모리노미야(森の宮) 第3次6號人骨, 4. 모리노미야(森の宮) 第4次2號人骨, 골자장: 5. 기토라가와(鬼虎川) D區1號土壙墓, 6. 기토라가와(鬼虎川) D區2號土壙墓, 7. 기토라가와(鬼虎川) D區3號土壙墓, 신전장: 8. 가메이(亀井) 1號周溝墓1號主體, 9. 가메이(亀井) 1號周溝墓6號主體, 10. 가메이(亀井) 2號周溝墓2號主體. 福永伸哉, 1990, 27쪽, 34쪽, 41쪽의 자료를 필자가 편집)

## 2) 신전장화의 배경

긴키지방에서 매장 자세가 점차 신전화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작 농경의 도입과 결부하여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 지석묘의 하부구조인 석관묘의 매장 자세가 대부분 신전장이기에 신전장을 도래인의 매장 풍습으로 전제하고, 도래인의 매장 풍습이 도작 농경과 함께 일본 열도로 전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매장 의례는 문화 요소 중 가장 보수성이 강한 것이기에, 긴키지방에 도작 농경이 정착된 이후인 야요이시대 중기에 도 조몬시대 전통의 굴장은 일부 잔존한다. 굴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분구묘가 확산되는 야요이시대 중기 이후로, 분구묘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야요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굴장 자세로 대표되는 조몬시대 사생관의 소멸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양상은 규슈지방도 유사하다. 규슈지방의 경우 점차 굴장에서 가볍게 구부리는 굴지장으로 변하는데, 조몬시대 후·만기에는 토광묘에 굴장과 신전장이 혼재되지만 굴지장이 대대수를 차지한다. 이후 야요이시대에 들어서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장시설로 새롭게 등장한 옹관, 석관묘와 함께 조몬시대 전통의 토광묘가 야요이시대 중기까지 이어지며, 매장 자세 역시 조몬시대 전통의 굴장, 신전장, 굴지장이 지역별로 선택된다.<sup>27</sup>

이상을 살펴보면 굴장에서 신전장으로의 변화는 한반도로부터의 새로운 매장 풍습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굴장이 보여주는 유체에 대한 조몬인의 관념과 대비되는 신전장에 대한 관념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신전장을 선택한 이유가 한반도의 영향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신전장으로의 변화를 한반도로부터 전파된 도작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

26 위의 논문, 15쪽.

27 坂本嘉弘, 「縄文: 彌生異後期の葬制変化(九州)」, 『縄文時代の考古學 9: 死と弔い 葬制』(東京: 同成社, 2007).

토착의 조몬인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sup>28</sup>, 도작 농경이 확산되기 이전의 동일본 조몬시대에도 신전장이 확인<sup>29</sup>되기 때문에 이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전장이 확인되는 시점 역시 동일본과 서일본에 차이가 있다. 동일본의 경우 조몬시대 중기 이후부터 신전장이 보이지만 서일본의 경우 조몬시대 만기에서 야요이시대 개시기에 신전장이 등장한다. 동일본의 경우 간토지방의 패총지대에서 신전장으로 변하는 단계에 복수 유체의 재장 풍습이 시작되고 홋카이도 이시카리저지대(石狩低地帯)의 신전장은 환상주제묘(環狀周堤墓)와 같은 지역 특유의 묘제와 관련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매장 자세의 변화는 관념적인 이유 외에도 무덤 조영 방식 자체의 변화와도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30</sup>

이를 정리하면 서일본에서 굴장에서 신전장으로의 변화는 한반도로부터 도작 농경과 함께 전파된 새로운 매장 풍습이 그 요인으로, 도작 농경을 바탕으로 시작된 야요이시대의 사회 변화가 조몬시대 매장 관념을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본에서의 매장 자세변화는 도작 농경 이전에 시작되기 때문에, 역시 조몬시대 중기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무덤 조영 방식이 유체에 대한 관념에도 변화를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재장

재장(再葬, 2차장)은 유체를 일단 백골화한 후, 뼈만을 다른 곳에 매장하는

---

28 福永伸哉, 앞의 논문(1990).

29 山田康弘, 앞의 논문(2001a); 山田康弘, 앞의 논문(2001b).

30 小林克, 앞의 논문(2005), 236쪽.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장 또는 화장 등에 의한 1차장 → 발굴(매장의 경우) → 유체의 해체 및 선골(選骨) → 2차장 매장 → 남은 뼈의 처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일본에서는 동일본을 중심으로 조몬시대 후·만기에서 야요이시대 중기 까지 성행하다 방형주구묘와 그에 부수된 토광묘가 출현하면서 급속하게 소멸된 묘제의 한 형태이다.<sup>31</sup> 일본 고고학에서 고대의 재장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지바현 덴진마에유적에서 뼈가 수납된 야요이시대의 호가 발견되면서부터로(그림5), 이후 야요이시대 재장의 기원을 조몬시대의 장제에서 찾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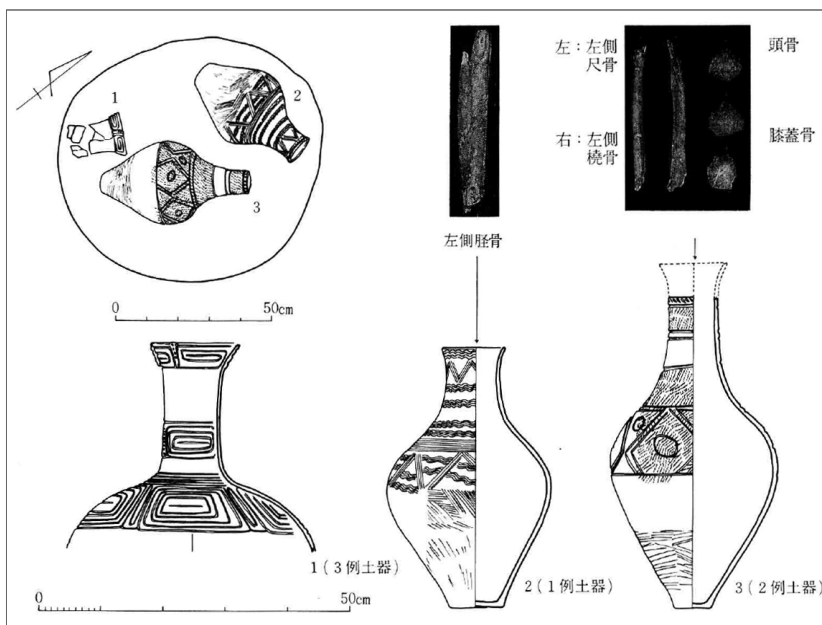


그림5- 덴진마에유적(天神前遺跡) 제1호 토광 출토 재장호  
(設樂博己, 1993c, 23쪽, 圖6의 자료를 전재)

31 石川日出志, 「再葬墓」, 『彌生文化の研究 8: 祭と墓と装い』(東京: 雄山閣, 1987).

재장은 뼈의 매장 또는 처리 방식에 따라 1차장에서 수습된 뼈를 모아서 매장하는 집골묘(集骨墓)와 뼈를 토기에 매장하는 토기관장(土器棺葬), 뼈를 불에 태우는 소인골장(燒人骨葬)으로 구분된다. 조몬시대의 재장묘는 대부분의 형식이 확인되지만 야요이시대의 재장묘는 토기, 특히 저장 용기인 호를 사용하는 호관재장(壺棺再葬)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집골묘는 1명에서 소수 사람의 뼈를 모아 두는 소인수집골묘(少人數集骨墓)와 10체 이상의 인골을 집적한 다인수집골묘(多人數集骨墓), 사지골을 방형의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뼈를 모아두는 반상집골묘(盤狀集骨墓), 뼈의 일부만을 매장하는 부분결실인골(部分缺失人骨 또는 散亂骨) 등으로 구분된다.<sup>32</sup> 재장의 풍습은 규슈지역에서 조몬 초기 중엽의 동굴유적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극히 소수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출현, 증가하는 것은 동일본지역의 조몬시대 후·만기부터이다.

### 1)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재장

시타라 히로미(設樂博己)<sup>33</sup>는 조몬시대의 재장묘를 정리하면서, 각 지역별 특징과 그 의미를 검토했는데, 조몬시대 만기에는 집골장, 토기관재장, 소인골재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재장 방식이 모두 확인된다(그림6).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재장 방식이 있는데, 슈부고지는 소인골장, 아이치현(愛知縣) 미카와지방(三河地方)은 반상집골묘, 긴키지방에는 인골 일부만을 토기에 매납하는 토기관매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32 設樂博己, 「縄文時代の再葬」,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49(1993b).

33 위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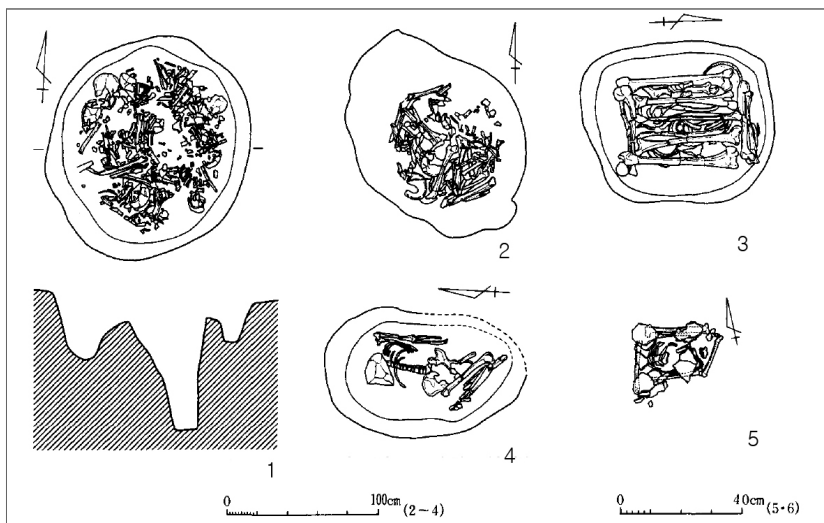


그림6-조몬시대 집골묘

(1. 곤겐바리패총(権現原貝塚) P65, 2. 기온바리패총(祇園原貝塚), 3. 구사카패총(日下貝塚), 4. 모토가리아패총(本荻谷貝塚), 5. 가레키노미야패총(設楽博己, 1993b, 24쪽, 圖2의 자료를 필자가 편집))

이 중 가장 특징적인 반상집골묘(그림6-3)는 대퇴골(大腿骨), 척골(尺骨), 상완골(上腕骨) 등의 사지골을 방형으로 만들고 내부에 두개골(頭蓋骨), 흉골(胸骨), 추골(椎骨), 골반 등을 매납한 독특한 장법으로, 분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아이치현의 미카와만(三河灣), 치다만(知多灣)을 감싸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현재까지 미카와만 주변 지역에서 6개소 유적 11사례가 알려져 있는데, 요시고패총(吉胡貝塚)의 사례가 4체, 호비패총(保美貝塚) 유적의 2례가 각각 6체와 7체, 미야히가시패총(宮東貝塚)의 사례가 3체, 이카와즈패총(伊川津貝塚)의 2례가 2체와 3체의 합장이다. 성별과 연령이 확인된 것은 4례가 있는데, 요시고패총과 모토가리아패총(本荻谷貝塚)의 사례는 모두 남성이고, 이카와즈패총의 사례는 1호가 남성 2체와 여성 1체, 11호가 남녀 1체씩이다.<sup>34</sup> 시기는 모두 조몬 만기에 해당된다.

소인골장은 주부고지에서 시작되어 호쿠리쿠지방, 긴키지방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이해된다. 토기관 재장의 경우, 긴키지방 조몬시대 만기에 많은 수가 확인되기에 긴키지방을 기원지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몬시대 매납토기의 전통이 야요이시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sup>35</sup> 중요한 점은 다양한 재장의 방식이 긴키지방부터 동일본지역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는 것이다.

조몬시대의 집골묘는 야요이시대에 들어와 없어지고, 호에 인골을 매납하는 토기관재장으로 변하게 된다(그림7). 야요이시대의 재장묘는 당초 1 유체 1 토기 수납의 원칙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이해되었는데, 만약 1개의 재장토기만 매납되거나 추가장에 의한 복수매장이라면 토기관재장은 개별적 또는 세대별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토지방, 도호쿠 남부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1기의 토광에 4~7개의 재장호가 매장되어 있으며, 후쿠시마현(福島県) 도리우치유적(鳥内遺跡)에서는 1개의 토광에 14개를 매납한 사례도 있다. 결국 이렇게 하나의 토광에 많은 수의 재장호가 매납된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조영되었거나 또는 세대공동체의 무덤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6</sup> 토기관재장은 야요이시대 중기까지 성행하다 동일본에 방형분구묘가 등장하면서 소멸하게 된다.

## 2) 영유아의 토기관과 재장의 토기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조몬시대의 토기관묘와 야요이시대 재장으로서의 토기관묘의 차이점이다. 일상용기로 사용되던 토기가 무덤으로 전용되는 사례는 조몬시대 전기 말부터 시작되지만 성행하는 것은 중기부터이며

---

34 위의 논문.

35 위의 논문.

36 石川日出志, 앞의 논문(1987), 152쪽.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토기관의 경우, 그 크기로 인해 성인의 유체가 수납될 수는 없기에 유아의 무덤 또는 성인의 재장묘로 이해되었는데 실제 인골의 분석<sup>37</sup>에 따르면, 성인의 재장묘로서의 조몬시대 토기관은 후기와 만기에만 확인되며, 그 이전 시기에 확인되는 것은 대부분 신생아 또는 영유아의 것이다. 또한 성인의 재장용 토기관과 미성년자의 토기관은 그 크기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미성년인골을 수납한 옹관은 구경 26~37cm, 기고 30~40cm에 집중되지만 성인 인골을 수납한 옹관은 구경 20cm 내외, 기고는 60cm 내외로 기고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확인되는 미성년자의 인골은 80% 이상이 영유아의 인골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연령층, 생후 1년 정도까지의 인골만이 확인된다.<sup>38</sup> 성인 재장의 경우 성별 차이도 없고 연령 역시 18~19세에서 50세까지로 재장의 특정한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유아 옹관은 생후 1년까지의 극히 한정된 연령만 매장되어 있어 강한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몬시대의 토기관묘는 대부분 심발형토기로(그림8), 동일본 야요이시대 재장묘가 호형토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서일본 야요이시대에 확인되는 토기관묘는 동일본의 재장묘와는 달리 신생아 또는 영유아만 매장된다는 점에서도 동일본과 차이를 보인다.<sup>39</sup>

37 菊地実, 「甕棺葬」, 『縄文文化の研究 9: 縄文人の精神文化』(東京: 雄山閣, 1983), 69쪽.

38 위의 논문, 60쪽.

39 角南聡一郎, 「西日本の土器棺墓と埋葬遺體」, 『奈良大學大學院研究年報』 4(4)(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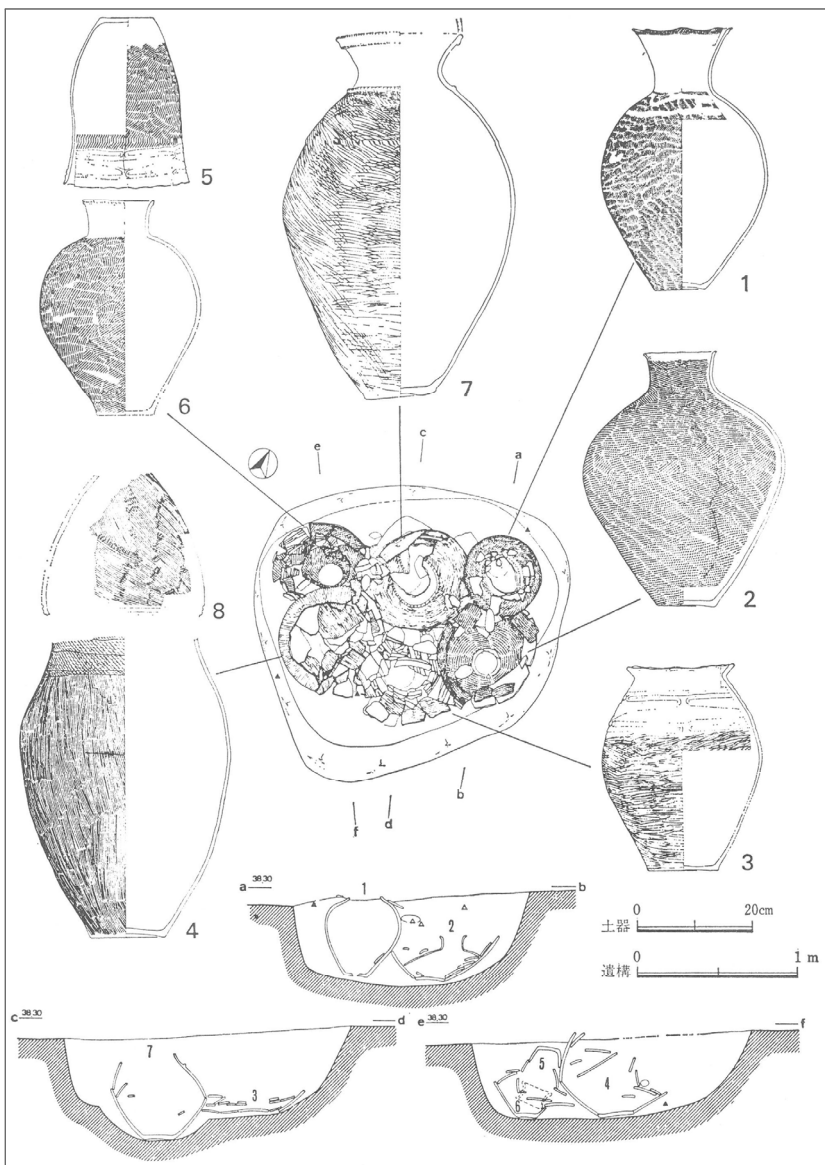


그림7-야요이시대 재장묘 무라지리유적(村尻遺蹟) 第91號 土壙  
(石川日出志, 1987, 151쪽, 圖10의 자료를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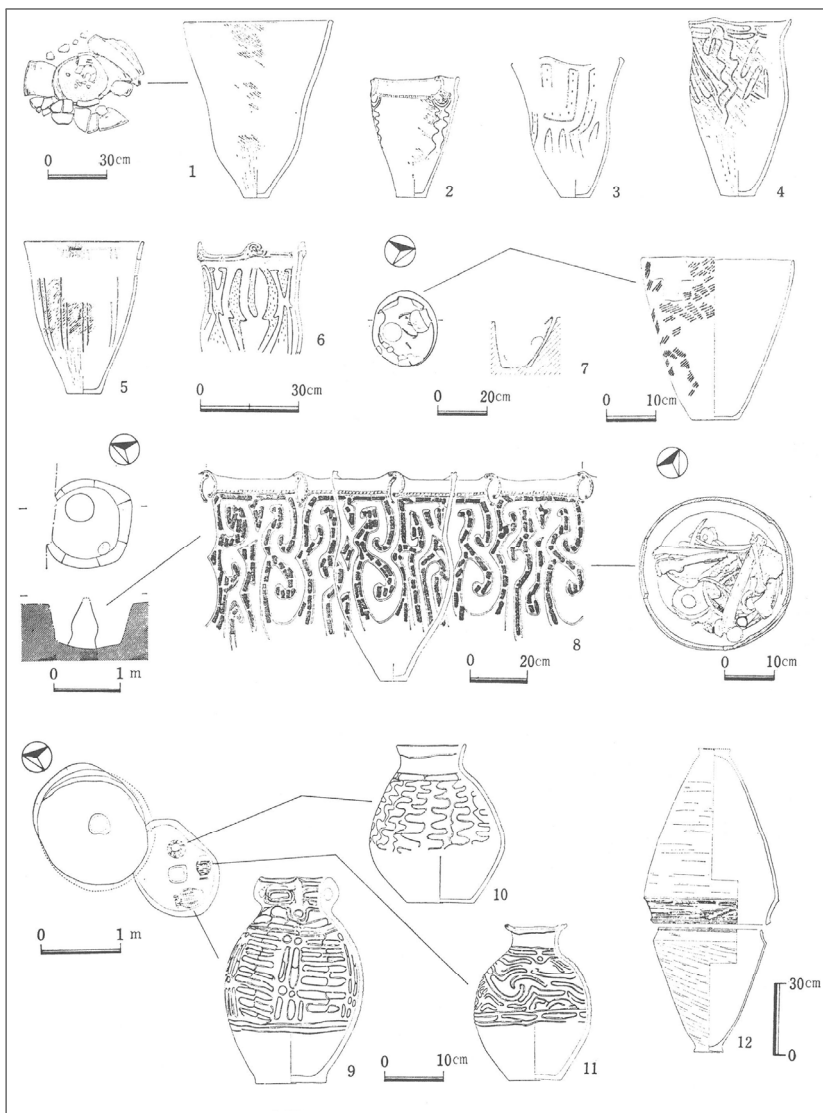


그림8-여러 종류의 조몬시대 토기관묘

(1. 생후 1년 반, 2. 신생아, 3. 생후 2개월, 4. 신생아, 5. 골분, 6. 골분(가이노하나파총(貝の花貝塚)), 7. 10개월 태아(마에하마파총(前浜貝塚)), 8. 숙년기 남성(반도아마유적(阪東山遺蹟)), 9. 골편, 10. 골분, 11. 인골 없음(다카호코유적(鷹架遺蹟)), 12. 10~20세의 어금니 3개(네기노유적(ネギの遺蹟))(菊地實, 1983, 65쪽, 圖1의 자료를 전재)

### 3) 재장을 통한 합장의 의미

이러한 재장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론이 있다. 우선 합장을 위한 재장으로 보는 견해로, 도호쿠지방 북부의 토기관재장은 하나의 토기에 1명의 인골을 매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토기관재장묘는 하나의 토광 또는 석곽 형태의 유구에 2~3개체 이상의 토기관을 매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집골묘는 여러 사람의 뼈를 하나의 장소에 모은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합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합장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조몬시대 후기 간토지방에서 확인되는 다인수집골묘의 사례이며(그림9), 다음에서는 다인수집골묘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sup>40</sup>

지바현 이치카와시(市川市) 곤겐바라패총(権現原貝塚)의 X13Gh3區P65토광에서 다수합장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토광은 장축 1.49m, 단축 1.33m의 부정연한 타원형에 깊이는 40cm로, 토광 바닥 중앙부에는 기둥 구멍 형태의 작은 수혈이 있어 기둥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출토된 인골은 17체 또는 18체로, 성인 남성 6, 성인 여성 4, 미성인 남성 3, 미성인 여성 3인, 성별 불명이 성인 1, 미성인 1로 추정된다. 아래턱뼈가 두개골과 이어져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각 유체의 사망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개골이 토광의 벽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고 사지골이 육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골이 무작위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놓여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1</sup>

지바현 후나바시시(船橋市) 고사쿠패총(古作貝塚)은 1984년 조사된 패총으로, 토광 내에서 14체 이상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토광은 장축 1.8m,

40 山田康弘, 「モニュメント」としての多數合葬・複葬例再考,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08(2018).

41 花輪宏(編), 『堀之内』(市川: 市川市教育委員會, 1987); 渡辺新, 『縄文時代集落の人口構造』(船橋: 私家本, 1991).

단축 1.3m의 평면 형태 말각장방향으로, 각 인골사이에 간층이 존재하지 않기에 동시에 다수의 인골을 매장했다고 판단된다. 인골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은 성인 남성 9, 성인 여성 3, 미성인 2로, 인골의 아래턱뼈가 붙어 있는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어, 매장 시 각 유체의 부패 상황이 서로 달랐다고 추정되는데, 이것은 각 유체의 사망시기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토광을 중심으로 12체의 인골이 환상으로 출토되고 있어 다수합장토광이 묘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2</sup>

지바현 지바시 혼다다카다패총(譽田高田貝塚)은 1954년 최초의 발굴조사에서 다수합장사례가 발견되었는데, 당시 최소 개체는 17체로 파악되었다. 1990년에 이 토광의 나머지 부분을 다시 발굴했는데, 토광은 직경 수 미터에 달하는 규모에 깊이는 20cm 정도이다. 벽에서 70cm 정도 떨어진 장소에 기둥 구멍과 같은 소형 수혈이 있어 상부에 어떠한 형태든 구조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토 인골의 사이에는 간층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의 인골이 동시에 재매장되었다고 추정되는데, 매장된 인골의 수는 1954년의 발굴 사례와 합치면 28체 이상이다. 추골(椎骨)이나 사지골이 완전히 분리된 것과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것 등 양상이 동일하지 않아 매장 시점에 개별 유체의 부패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합장토광 부근에는 매장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가 없는 공백지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다수합장 토광 주변을 묘역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 출토 토기 등으로 보아 다수합장토광은 취락의 개설과 거의 동일 시점으로 추정된다.<sup>43</sup>

42 岡崎文喜・柳生頼完(編), 『古作貝塚 II』(船橋: 船橋市教育委員會, 1983).

43 島津修久・森山英一・村津康, 『譽田高田貝塚』(東京: 學習院高等科史學部, 1954); 出口雅人, 『千葉市譽田高田貝塚確認調査報告書』(千葉: (財)千葉県文化財センター,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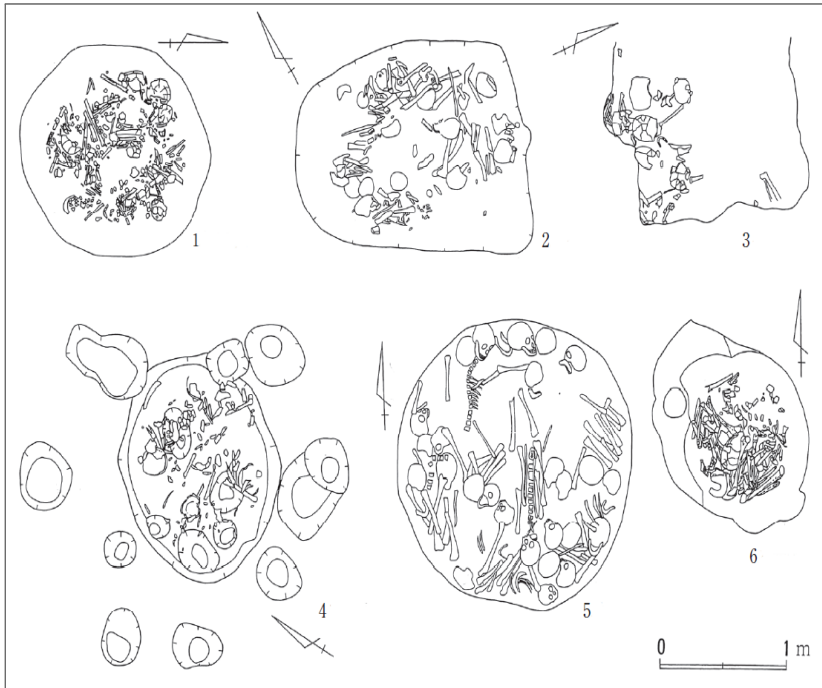


그림9-다인수집골묘의 사례

(1. 곤겐바라패총(権現原貝塚), 2. 고사쿠패총(古作貝塚), 3. 혼다다카다패총(蓼田高田貝塚), 4. 기온바라패총(祇園原貝塚) ①, 5. 나카쓰마패총(中妻貝塚), 6. 기온바라패총(祇園原貝塚)(山田康弘, 2018, 145쪽, 圖1의 자료를 필자 편집)

지바현 이치하라시(市原市) 기온바라패총(祇園原貝塚)에서는 2개의 다수 합장사례가 발견되었다. B2-43區 토광은 장축 1.5m, 단축 1.4m의 타원형으로 깊이는 20cm 정도로, 바닥면에서 5개의 피트가 확인되었으며, 주위에서는 토광을 감싸듯이 10개의 피트가 있어 상부에 구조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개골의 수로 보아 6체 이상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지골은 해부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으며 두개골에 비해 그 수가 적다. GIV310 토광은 장축 1.1m, 단축 0.9m의 타원형으로, 깊이는 60cm 정도이다. 두개골의 수로 보아 매장된 것은 5체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 토광에 접해서 5개의 피트가 존재하는 점에서 상부구조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수합장 토광을 중심으로 해서 동 시기의 인골 12체가 검출되었기에 이 부근을 묘역으로 인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sup>44</sup>

이비라키현(茨城県) 토리데시(取手市) 나카쓰마패총(中妻貝塚)은 G지점 A 토광에서 다수합장이 확인되었다. 직경 1.9m 정도의 원형에 최소 개체수 106체가 넘는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인골 중에는 추골이나 아래턱뼈가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각 개체의 사망 시점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골은 성인 남성이 41, 성인 여성 19, 약년(若年) 여성 3, 유아~소년 기 29, 불명 4이다.<sup>45</sup>

야마다 야스히로(山田康弘)는 이러한 다인수집골묘 합장 사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sup>46</sup>

① 다수합장이 이루어진 시기는 후기 전엽에 집중되어 있는데, 취락의 개시기 또는 형성재개기에 해당된다. ② 토광에 부수되는 유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상부구조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③ 취락 내의 광장 또는 묘역의 중심부 등 특수한 지점에 위치한다. ④ 다수합장이 확인되는 토광에 근접해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구축된 주거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⑤ 출토 인골 중에는 신생아, 유아기 등의 인골은 없다. ⑥ 출토 인골의 남녀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경향이 있다.

재장을 통한 합장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본 고고학의 초기에는 피장자의 혈연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무덤을 파는 데 들이는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집단의 결속을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4 米田耕之助, 「縄文時代後期における一葬法」, 『古代』 67(1980); 鷹野光行, 「祇園原貝塚北側の道路造成部分に関する調査」, 『祇園原貝塚 III』(市原: 上総國分寺台発掘調査団, 1983).

45 宮内良隆・西本豊弘(編), 『中妻貝塚』(取手: 取手市教育委員会, 1995).

46 山田康弘, 앞의 논문(2018).

우선 집골묘의 경우, 피장자의 성별, 연령, 발치 형식 등이 특정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적지 않다. 특히 발치 형식이 그러한데, 동일한 형식의 발치 인골의 합장을 동일한 출자 집단 사람들의 합장으로 보고 있다.<sup>47</sup> 이와 유사하게 재장을 집단의 결속을 위한 행위로 이해하기도 한다. 도호쿠지방 북부에서는 조몬시대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재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기후의 한랭화로 인해 대규모 취락이 해체되고 취락의 소규모, 분산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취락이 소규모화되는 것에 비해 묘지는 대규모화되는데, 이것을 분산화된 여러 소집단이 하나의 공동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기후한랭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규모로 분산된 취락을 하나로 묶어 주는 기제로 다인수집골장 등이 등장한 것으로 공동묘지는 하나의 기념물적인 존재로 기능했던 것이다.<sup>48</sup>

이는 홋카이도 등의 지역에서 조몬시대 후기에 배석묘가 증가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의 돌로 만든 배석유구(配石遺構), 조석유구(組石遺構), 부석유구(敷石遺構), 입석유구(立石遺構), 환상열석(環狀列石) 등을 총칭하여 배석(配石)으로 부르며<sup>49</sup>, 일반적으로 조몬시대에 후기에 성행하는 것은 모두 무덤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배석묘(配石墓)로 구분하기도 한다.<sup>50</sup> 이러한 배석묘는 조몬시대 초기, 전기에는 국지적으로 존재하다 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후기 후반부터는 줄어들어 야요이 시대에 조몬시대 계통의 배석묘는 확인되지 않는다.<sup>51</sup> 이러한 상징적인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배석묘의 등장 역시 하나의 기념물로 파악할

47 春成秀爾, 「縄文合葬論: 縄文後・晩期の出自規定」, 『信濃』(1980).

48 設樂博己, 「再葬の背景: 縄文・弥生時代における環境変動と対応関係」,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2(2004).

49 阿部義平, 「配石」, 『縄文文化の研究 9: 縄文人の精神文化』(東京: 雄山閣, 1983).

50 阿部昭典, 「縄文時代における配石墓・石棺墓の研究視點と課題」, 『縄文時代の配石墓と石棺墓 考古學ジャーナル 702』(2017), 3쪽.

51 上野佳也, 「配石遺構についての一考察」,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3(1984).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인수집골묘의 상부구조나 묘에 관계된 배석유구는 조령제사(祖靈祭祀)를 위한 기념물로 집단의 귀속의식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동일하지만, 이를 분산화된 동일 출자 집단이 아닌 출자가 서로 다른 복수의 집단이 가까운 거리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할 때 생기는 사회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장송 의례로 보기도 한다.<sup>52</sup> 즉 서로의 선조를 합장함으로써 각 집단 간의 관계 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1차장이든 재장이든 합장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발치 형식은 마을 출신자와 혼인으로 마을에 들어온 사람, 즉 혼입자(婚入者)를 구분하는 것인데, 특징적인 발치 형태의 인물들만이 합장되거나 또는 합장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출자가 다른 사람들이 합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기도 한다.<sup>53</sup> 그렇다면 조몬시대에는 부부합장이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일부의 사례에서는 합장자들 사이에 유전적 관계가 있는 것이 있으며,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합장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에,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매장군은 가족이나 3세대 정도까지 걸친 소가족집단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54</sup>

또는 다인수집골 합장 사례의 대부분이 유아에서 장년층까지의 남녀가 섞여 있어 성별, 연령 등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취락 구성원들의 무덤으로 이해하며, 묘역의 개수(改修) 등에 의해 먼저 매장된 사람들의 뼈를 정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sup>55</sup> 혹은 조몬시대 후·만기에는 성인식, 혼인

52 山田康弘, 앞의 논문(2018), 148쪽.

53 春成秀爾, 앞의 논문(1980).

54 山田康弘, 「縄文時代における部分骨合葬」,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78(2013).

55 設樂博己, 앞의 논문(1993b).

등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발치를 하듯이 통과의례의 행위가 철저히 지켜졌는데, 재장 역시 사자의 통과의례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sup>56</sup>

이렇듯 재장을 통한 합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집단의 결속을 위한 하나의 기념물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야요이시대의 재장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야요이 시대 전기, 중기 전반의 취락들은 매우 소규모로, 분산해서 거주하는 동일 출자 집단의 사람들이 사자의 유체를 한 장소에 모아서 상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의례로서 재장이 실시된 것이다.<sup>57</sup>



그림10-소인골(燒人骨), 야요이시대 중기, 야쓰가하 기암음유적  
(八束脛岩陰遺蹟)(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99, 168쪽, 350쪽의 자료를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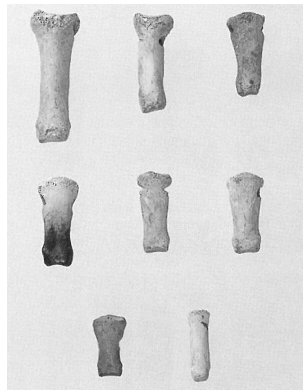


그림11-인골 장신구, 야요이시대 중기, 야쓰가하 기암음유적  
(八束脛岩陰遺蹟)(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99, 168쪽, 351쪽의 자료를 전재)

56 石川日出志, 앞의 논문(2005), 34쪽.

57 위의 논문, 36쪽.

#### 4) 재장의 관념적 배경

재장을 통한 합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1차장을 통해 유골을 선별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는 2차장을 통해 보관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쇄하는, 복잡한 재장의 과정에 깔려 있는 관념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장 자체는 유골을 백골화한 후, 인골의 일부는 재장하고 나머지는 태우거나 부수는 것으로 지상에서 사자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재장의 주요한 목적을 유체의 형태를 없애서 사령(死靈)이나 악령(惡靈)이 유체에 갇혀서 인간에게 죽음이나 재액을 가져오는 형태로 사자가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58</sup> 소인골(燒人骨) 역시 재장 후 남은 뼈를 태운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그림10), 유체의 뼈를 보존해 재장하는 것과 뼈를 태워서 파괴하는 행위는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자의 재생을 기원하는 마음과 영혼이 떠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59</sup>

이러한 조몬시대 재장의 관념적 전통은 야요이시대까지 이어진다. 조몬 시대와 달리, 야요이시대 재장에 저장용 토기인 호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도작 농경의 도입과 함께 호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토광에서 다수의 호가 발견되지만 인골이 매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해 있다는 것은 재장묘와 음식물 공헌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조몬시대에는 없던 재장 과정에서 사자의 치아나 뼈를 선별하여 장신구로 착장하는 풍습이 동일본의 야요이시대에 등장하는데(그림11), 이것을 사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속성, 권리, 의무 등의 상속

58 春成秀爾, 「彌生時代の再葬制」,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49(1993).

59 設樂博己, 앞의 논문(1993b), 37쪽.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60</sup> 즉 야요이시대 도작 농경의 도입에 토지의 점유권, 각종 기물의 사용권, 교섭권 등이 새롭게 등장한 시점에 주목한 것이다.

### 3.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

이상에서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매장 자세와 재장을 통해 일본 고대의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조몬시대의 전통적인 매장 자세는 사자의 영혼이 유체를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몸을 웅크려 매장하는 굴장이었다. 굴장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몬시대 전 시기를 통해 유지되다 야요이시대를 거치면서 신전장으로 변하게 된다.

신전장으로의 변화는 서일본과 동일본에서 서로 다른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서일본에서 굴장에서 신전장으로 변하는 시기가 조몬시대 만기에서 야요이시대 개시기에 걸쳐 있다는 것은, 한반도로부터 도작 농경과 함께 전파된 신전장의 매장 풍습이 서일본에 확산되어 기존의 굴장 풍습을 대체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동일본에서 신전장이 등장하는 시기는 다인수집굴묘의 재장 풍습이 시작되고 환상주제묘와 같이 기념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묘제가 출현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조몬시대 중기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무덤 조영 방식의 변화가 매장 자세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자의 영혼이 유체에 계속 갇혀 있기를 기원하는 의도의 굴장에 대해 신전장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

60 春成秀爾, 앞의 논문(1993).

그러나 굴장에서 신전장으로의 변화는 조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체에 대한 관념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은 명확하다. 즉 도작 농경을 바탕으로 시작된 야요이시대의 사회 변화로 인해 수천 년간 지속되었던 조몬인들의 유체에 대한 관념이 소멸되었으며, 동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몬시대 중, 후기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무덤의 형식뿐 아니라 유체에 대한 관념에도 변화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유체를 백골화한 후, 인골의 일부를 다시 매장하고 나머지는 태우거나 파쇄하는 재장은, 굴장의 관념과는 상반된다. 유체를 보존하여 영혼이 떠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뼈의 일부를 매장하는 것은 굴장의 관념과 이어지지만, 뼈를 태우고 파쇄함으로 유체의 형태를 완전히 없애 사령이나 악령이 유해에 갇들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은 굴장과는 전혀 반대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체를 보존하는 처리와 유체를 파괴한다는 통과 의례를 거쳐 사자가 조령(祖靈)으로 재생하기를 기원하는 처리라는, 유체에 대한 상반된 관념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념적인 배경 외에도 재장을 통한 합장은 집단의 결속을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집골묘의 형태로 재장이 이루어지는 조몬시대와 다수의 재장호가 하나의 토광에 매납되는 야요이시대의 재장은 그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주변에 소규모로 분산화되어 있던 집단의 공동묘지로서, 자신들 선조의 유해를 한곳에 모아 무덤을 만들면서 각 집단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몬시대의 재장묘가 기후가 한랭화되어 취락이 소규모화, 분산화되는 조몬시대 후기에 성행하고, 야요이시대 전기, 중기에 취락들이 매우 소규모였다는 점은 이러한 재장의 사회적 의미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

이상에서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 무덤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중 사후부가속성인 매장 자세와 재장에 대해서 검토했다.

일본 고고학에서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명확하다. ‘평등적·주술적 조몬문화’에 대해 ‘사회적 복합화와 계층화가 진전된 야요이문화’라는 대비되는 관점은 두 시대의 무덤과 장제를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조몬시대 전통의 굴장과 재장 과정을 유체에서 영혼이 떠나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영혼이 유체에서 벗어나 조령(祖靈)이 되기를 기원하는 서로 상반되는 의도를 가진 유체 처리 방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지극히 ‘주술적’인 측면으로 조몬시대의 무덤과 장제를 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야요이시대의 신전장과 재장에 대해서는 도작 농경 문화의 영향과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집단이 각 선조의 유해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집단의 결속을 의도한 것으로 보며, 재장 과정에서 선별된 사자의 뼈 일부나 치아를 장신구로 사용하면서 야요이시대 새롭게 등장한 권리와 의무의 계승 과정으로서 재장을 해석하고 있다.

일본 고고학에서 논의되는 조몬시대, 야요이시대의 매장 자세와 재장에 대한 이해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석은 아직 장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 고고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國立歴史民俗博物館, 『新弥生紀行』. 大阪: 朝日新聞社, 1999.
- 宮内良隆・西本豊弘(編), 『中妻貝塚』. 取手: 取手市教育委員会, 1995.
- 島津修久・森山英一・村津康, 『譽田高田貝塚』. 東京: 學習院高等科史學部, 1954.
- 雄山閣, 『特集 ヒトの骨考古學季刊考古學143號』. 東京: 雄山閣, 2018.
- 岡崎文喜・柳生頼完(編), 『古作貝塚 II』. 船橋: 船橋市教育委員会, 1983.
- 渡辺新, 『縄文時代集落の人口構造』. 船橋: 私家本, 1991.
- 出口雅人, 『千葉市譽田高田貝塚確認調査報告書』. 千葉: (財)千葉県文化財センター, 1991.
- 花輪宏(編), 『堀之内』. 市川: 市川市教育委員会, 1987.

### 2. 논문

- 角南聡一郎, 「西日本の土器棺墓と埋葬遺體」. 『奈良大學大學院研究年報』 4(4), 1999, 137~164쪽.
- 菊地実, 「甕棺葬」. 『縄文文化の研究 9: 縄文人の精神文化』, 東京: 雄山閣, 1983, 57~71쪽.
- 近藤義郎, 「前方後円墳の成立と変遷」. 『考古學研究』 15(1), 1968, 24~32쪽.
- 奈良貴史, 「総論 出土人骨の最新研究」. 『考古學ジャーナル』 645, 2013, 3~4쪽.
- 都出比呂志, 「農業共同體と首長権」. 『講座日本史 1』, 東京: 岩波書店, 1970, 26~66쪽.
- 米田耕之助, 「縄文時代後期における一葬法」. 『古代』 67, 1980, 31~38쪽.
- 福永伸哉, 「原始古代埋葬姿勢の研究」. 『日本古代墓制の考古學的研究: とくに埋葬姿勢と埋葬儀禮の関わり』, 大阪: 大阪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90, 5~23쪽.
- 山内清男, 「日本遠古の文化 六」. 『ドルメン』 9, 1932, 48~51쪽.
- 山田康弘, 「縄文人の埋葬姿勢 上」. 『古代文化』 53(11), 2001a, 624~644쪽.
- \_\_\_\_\_, 「縄文人の埋葬姿勢 下」. 『古代文化』 53(12), 2001b, 17~34쪽.
- \_\_\_\_\_, 「総論 縄文時代の葬制」. 『縄文時代の考古學 9: 死と弔い 葬制』, 東京: 同成社, 2007, 3~17쪽.
- \_\_\_\_\_, 「縄文時代における部分骨合葬」.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78, 2013, 57~83쪽.
- \_\_\_\_\_, 「モニュメント」としての多數合葬・複葬例再考」.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08, 2018, 143~164쪽.

- 三宅宗悦, 「日本石器時代の埋葬」. 『人類學・先史學講座 2』, 1938, 41~47 号.
- 上野佳也, 「配石遺構についての一考察」.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3, 1984, 27~40 号.
- 石川日出志, 「再葬墓」. 『彌生文化の研究 8: 祭と墓と装い』, 東京: 雄山閣, 1987, 148~152 号.
- \_\_\_\_\_, 「a. 葬制」,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2005, 345~351 号.
- 設樂博己, 「縄文人の通過儀禮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 『新視點 日本の歴史 原始編』, 東京: 新人物往來社, 1993a, 124~131 号.
- \_\_\_\_\_, 「縄文時代の再葬」.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49, 1993b, 7~46 号.
- \_\_\_\_\_, 「壺棺再葬墓の基礎的研究」.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50, 1993c, 3~48 号.
- \_\_\_\_\_, 「再葬の背景: 縄文・彌生時代における環境変動と対応関係」.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2, 2004, 357~380 号.
- 小金井良精, 「日本石器時代人の埋葬状態」. 『人類學雜誌』 38(1), 1923, 25~47 号.
- 小林克, 「b. 縄文墓地」. 『日本の考古學 上』, 広島: 學生社, 2005, 235~243 号.
- 小杉康, 「一葬墓祭制と大規模記念物」. 『講座 日本の考古學 4: 縄文時代』, 東京: 青木書店, 2014, 439~483 号.
- 阿部昭典, 「縄文時代における配石墓・石棺墓の研究視點と課題」. 『縄文時代の配石墓と石棺墓』, 考古學ジャーナル 702, 2017, 3~6 号.
- 阿部義平, 「配石」. 『縄文文化の研究 9: 縄文人の精神文化』, 東京: 雄山閣, 1983, 32~45 号.
- 鷹野光行, 「祇園原貝塚北側の道路造成部分に関する調査」. 『祇園原貝塚 III』, 市原: 上総國分寺台発掘調査団, 1983.
- 林謙作, 「縄文期の葬制-2-遺體の配列-とくに頭位方向」. 『考古學雜誌』 63(3), 1977, 211~246 号.
- 長谷部言人, 「石器時代の蹲葬に就て」. 『人類學雜誌』 35(1), 1920, 22~29 号.
- 中村大, 「縄文文化」, 『副葬を通してみた社會の変化 季刊 考古學 第70號』, 東京: 雄山閣, 2000, 19~23 号.
- 阪本嘉弘, 「縄文: 彌生異後期の葬制変化(九州)」, 『縄文時代の考古學 9: 死と弔い 葬制』, 東京: 同成社, 2007, 179~191 号.
- 春成秀爾, 「抜歯の意義-1-縄文時代の集団関係とその解體過程をめぐって」. 『考古學研究』 20(2), 1973, 25~48 号.

\_\_\_\_\_, 1980 「縄文合葬論: 縄文後・晩期の出自規定」, 『信濃』 32(4), 1980.

\_\_\_\_\_, 「彌生時代の再葬制」,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49, 1993, 47~91쪽.

## 국문초록

일본 고고학에서 조몬시대의 무덤과 야요이시대의 무덤의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몬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야요이시대까지 조몬문화의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는 동일본지역과 한반도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서일본에는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크게 본다면 매장 자세는 굴장에서 신전장으로의 변화, 기원이 다른 집단의 공동체 결속을 다지기 위한 무덤에서 사회적 계층을 보여주는 무덤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조몬시대 사생관과 무덤에 대한 인식이 대륙의 문화적 영향으로 여러 변용을 겪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몬시대 전통의 굴장과 재장 과정을 유체에서 영혼이 떠나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영혼이 유체에서 벗어나 조령(祖靈)이 되기를 기원하는, 서로 상반된 의도를 가진 유체 처리 방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지극히 ‘주술적’인 측면으로 조몬시대의 무덤과 장제를 해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야요이시대의 신전장과 재장에 대해서는 도작 농경 문화의 영향과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집단이 각 선조의 유해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통해 집단의 결속을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고고학에서 논의되는 조몬시대, 야요이시대의 매장 자세와 재장에 대한 이해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석은 아직 장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 고고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23. 9. 5.

심사일 2023. 10. 4.

게재 확정일 2023. 11. 9.

주제어(keywords) 조몬시대(Jomon Period), 야요이시대(Yayoi Period), 매장(burial), 묘제(burial system)

## Abstract

### Perceptions of Burial and Body in Prehistoric Japan

Yi, Kisung

In Japanese archeology, the tombs of the Jomon and Yayoi periods have distinct meanings. The distinction is stark even after acknowledging the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East Japan—the center of Jomon culture, where the elements of this culture strongly persisted through the Yayoi period—and West Japan, where cultural influence from the Korean Peninsula was strong. For example, from the Jomon to the Yayoi period, the burial position changed from crouched burial to extended burial. Additionally, the objective of the tomb changed from promoting solidarity among groups with different origins to demonstration of social hierarchy. This indicates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life and death and of tombs during the Jomon period because of foreign cultural influence.

The crouched burial position and funeral ceremonies of the Jomon period are interpreted from an extremely “shamanistic” perspective. Two types of body disposal practices with conflicting intentions were concurrently followed. First, to prevent the soul from wandering away from the body; second, hoping that the soul would escape from the body and merge with the ancestral spirit. Meanwhile, the extended burial position and reburial of the Yayoi period were probably influenced by the rice farming culture. Additionally, they reflect the intention of promoting solidarity among the originally small and dispersed groups as they merged together the remains of their ancestors.

Debates on the burial positions and reburial during the Jomon and Yayoi periods among Japanese archaeologists rest on several theories that are difficult to prove archaeologically. However, interpretations from multiple viewpoints have many implications for archaeology in Korea, where relatively few studies have examined funeral ceremonies.

